

## 중국의 ‘주선율(主旋律)’ 문예정책과 ‘반부패 소설’ 연구\*

### A Study on ‘Main melody’ literary policy and ‘Anti-corruption novel’ of China

이 태 준(Lee, Tae Jun)\*\*

#### ABSTRACT

Since the launch of China's Reform and Opening-up policies in 1980, the corruption problem became a pivotal issue that gained the focus of the contemporary public and was therefore reflected in the literary works of various artists. These literatures, called the anti-corruption novels, mainly accused the rulers who utilized their superior positions to pursue private profits in the spread of Mammonism. In addition, the novels criticized the hideous nature of bureaucracy, the corrupt daily lives of the leaders, and the irrationality of exchange of finance and authority. Moreover, government employees' nefarious inners and personalities are illustrated in the creations. In other words, the writers initialized to examine the abuse of political power and illegal activities committed by public officers that led to political corruption.

Obviously, the anti-corruption literature was not established by the spontaneity or genuine conviction of the writers. This is attributed by the fact that the Chinese society severely controlled the media and the freedom of press. The Chinese government was soon threatened by the fact that corruption already turned into a crucial problem which could affect the fatal of the nation and lead to the destruction of the social system. Thus, it began to take extensive measures, such as rectifying laws and policies and more importantly, manipulating literature,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Anti-corruption literature thereby entered the “main melody” literature, representing the mainstream of beliefs and values.

Main melody literature aimed to reveal the major trend, fundamental regulation, and mainstream thought of social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ra. After the 1990s, the political literature played a significant role at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the governing class inside the convention set by the ideology of the rulers. Unlike the suppressing mechanism applied before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ies, the mechanism in which the producers of these literary creations worked was encouraging. Hence, the anti-corruption literary was obliged to give priority to describe the ideology of authorities rather than criticizing the corrupt activities committed in reality. Ignoring the fact that the actual corruption emerged from the inner part of the organization that owned and practiced public power and forcing the readers to discover uprightness in communalists, anti-corruption novels sought to cringe to the government power instead of serving the public or Socialism.

Owing to the appearance of heroes and solving problems, the endings of the novels are always trenchant. However, the fabrication due to authors' feeble ideal convictions and the government's literary policy concealed and distorted the root of corruption. The imaginary settlements of problems were completed in disguise and eventually the authors served as pawns that justify the mainstream ideology under the commands of the nation.

Key words: Anti-corruption novel, Main melody literature, Chinese literary policy, Talks at the Yan'an Forum on Literature and Art, Zhang-Ping

\* 이 논문은 2013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13-R162)

\*\* 가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부교수

## 1. 들어가는 말

중국문학 작품에 있어 반부패 및 청렴 사상 구현의 기원을 탐색해 보자면 3,000 여년 전 『시경(詩經)』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시경』의 「벌단(伐檀)」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지배층의 탐욕과 부패를 비난하여 “농사도 짓지 않는 데 어찌 벼 삼백 전(塵)을 갖는가, 사냥을 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뜰에 담비가 내걸려 있는가?”<sup>1)</sup>라고 노래하였다. 한(漢) 대의 조일(趙壹)의 『자세질사부(刺世疾邪賦)』는 시대의 혼란상과 정치부패의 추악한 모습을 폭로한 걸작으로 손꼽힌다. 죽림칠현(竹林七賢) 중 한명인 완적(阮籍)은 『영회(咏懷)』시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대한 비분강개를 노래하였다. 당(唐) 현종(玄宗)과 양귀비(楊貴妃)의 사치와 향락, 양국충(楊國忠)과 고력사(高力士)의 전횡은 ‘안사(安史)의 난’을 불러왔고, 이에 두보(杜甫)와 이백(李白), 백거이(白居易), 원진(元稹) 등은 부패한 정치를 반대하고 민중의 고달픈 삶을 묘사한 다양한 시를 창작하였다. 그 중 杜甫는 『자경부봉선현영회오백자(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에서 “귀족 집안 붉은 대문 안에는 술과 고기 냄새 가득하데, 길에는 얼어 죽은 사람들의 뼈가 나뒹구네”<sup>2)</sup>라고 하여 지배계급의 향락과 부패를 일반 민중들의 삶의 고통과 극명하게 대비시켜 묘사하였다. 오경재(吳敬梓)의 『유림외사(儒林外史)』는 과거제도의 부패를 묘사하였고, 조설근(曹雪芹)의 『홍루몽(紅樓夢)』에는 상류사회의 전반적인 타락과 부패상이 담겨져 있다. 이백원(李伯元)의 『관장현형기(官場現形記)』, 『문명소사(文明小史)』, 오연인(吳妍人)의 『구병기원(九命奇冤)』, 『이십년목도지괴현상(二十年目睹之怪現象)』, 유악(劉鶚)의 『노잔유기(老殘游記)』, 증박(曾朴)의 『얼해화(孽海花)』 등의 ‘견책소설(譴責小說)’은 만청(晚清)시기에 창작된 작품들로, 관료들의 탐욕과 후안무치, 사대부 계급의 타락과 사회 풍속의 부패를 여실히 그려낸 청조 말엽 중국 사회의 단면 도라 할 수 있다.

반부패 문학은 1990년대에 다시금 등장하여 부정부패가 중국 문학 탄생기부터 현대까지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소재임을 증명하고 있다. 사회 도덕적, 법률적 의미로서의 ‘부패(腐敗)’란 주로 일정한 권리를 장악한 국가 당정기관의 공직자들이 직무를 이용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를 말하며, 그 표현 형태는 수뢰, 공금 횡령, 독직(瀆職) 등이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 이후 중국에서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된 이래, 눈부신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향락주의와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고, 이는 권력자 및 공직자의 부정부패 심화라는 사회 문제를 야기하여 중국 사회를 좀 먹는 최대의 독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청렴도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있어 중국은 해마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2년에는 조사대상국 176개국 중 80위를 차지하여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 “不稼不穡，胡取禾三百塵兮，不狩不獵，胡瞻爾庭有縣貆兮”，「伐檀」，『詩經』

2) “朱門酒肉臭，路有凍死骨”，杜甫，「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唐詩三百首』

특히 1990년대 이후 공권력의 사유화와 절대화, 권력의 시장화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원수와 부정부패 행위로 얻은 소득액은 날이 증가하고 있고, 부패 관리의 직급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부패의 영역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적 부패행위로부터 사법영역, 교육영역 등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의 '관시(關係)' 문화를 보여주듯 집단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sup>3)</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정부패 문제가 민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시대적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문인들은 부정부패의 문제를 창작에 반영하여 이른바 '반부패 소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반부패 소설은, 개혁개방 이후 갈수록 중국사회 곳곳을 뒤덮고 있는 배금주의의 만연 속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의 부패를 고발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중 장평(張平)의 『결택(抉擇)』, 『십면매복(十面埋伏)』, 육천명(陸天明)의 『창천재상(蒼天在上)』, 『대설무흔(大雪無痕)』, 주매삼(周梅森)의 『중국제조(中國製造)』 등의 작품은 사법, 행정, 법조계, 금융계 등 각 부문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부패행위를 소재로 삼아 고발하고 있다.

물론 중국과 같이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는 사회에서 문인들의 자발성과 순수한 신념에 따라 반부패 문학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권력의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1993년 8월 「중국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제이차전체회의(中国共产党中央纪律检查委员会第二次全体会议)」에서 강택민(江澤民)은 “부패 현상은 당과 국가의 건강한 신체에 파고든 병균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넘쳐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당과 우리의 인민정권, 그리고 우리의 사회주의 현대화의 대업을 매장해버리는 것”<sup>4)</sup>이라며 부정부패에 대하여 우려와 경고를 표시하였다. 뿐 만 아니라 최근 20여 년 동안 중국의 국가지도자들이 국가적 공식 회의석상에서 20여 차례 이상 부패 척결을 언급하였을 만큼, 중국의 부정부패는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만한 심각한 문제가 되어 버렸고, 이에 체제 전복의 위협마저 느낀 중국 정부에서는 법률과 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문예를 수단으로 삼는 부패 방지 대책에 착안하게 되었다. 이로써 반부패 문학은 이른바 '주선율(主旋律)' 문학, 즉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이념 및 가치를 대변하는 문학의 범주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반부패 소설은 권력의 비호를 받

3) 「중국최고인민검찰원(中國最高人民檢察院)」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월에서 2006년 8월까지, 중국 검찰기관에서 부정 부패로 적발한 인원수는 67,505명으로서 매월 1,600명, 매일 53명의 관리들이 부정부패사건을 저지른 셈이다. 2007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중국 전역에서 643,759건의 부정부패 사건이 적발되어 고위공직자 18,227명을 비롯해 668,429명이 처벌되었다. 2008년 한 해 동안의 해외도피자금은 약 3,360억 위안, 그리고, 2009년 한해 뇌물수수 총액은 2,347억 위안(한화, 약 4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http://club.china.com/data/thread/1011/2749/78/85/6\\_1.html](http://club.china.com/data/thread/1011/2749/78/85/6_1.html) 및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93817](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93817) 참조

4) 江澤民, “腐败现象是侵入党和国家健康肌体的病毒。如果我们掉以轻心, 任其泛滥, 就会葬送我们的党, 葬送我们的社会主义现代化大业。”, 「中国共产党中央纪律检查委员会第二次全体会议上的讲话」

으며 성장하여,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말부터 2010년까지 10여년의 기간 동안 중국에서 출판된 반부패 소설 작품은 1,000 여 편이 넘으며, 온라인상에서 베스트셀러 통계에 오른 반부패 소설은 488편에 이른다.<sup>5)</sup>

기존의 반부패 소설에 대한 논문은 대부분 반부패소설의 현실 비판의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주제와 제재 및 인물형상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가운데 문학적인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1980년대 말·90년대 초부터 중국에서 사회주의 문화 변형·발전의 축진을 목표로 문예의 ‘다양화’ 방침(提倡多樣化)과 함께 대두된 이른바 ‘주선율’ 선양 방침(弘揚主旋律)이 반부패소설의 탄생과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망해 보기로 한다.

## II. 반부패 소설의 주제, 인물형상 및 서사구조

앞서 말했듯,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관료사회의 부패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개혁개방에 따른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패 현상은 중국 사회 곳곳에 만연하게 되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많은 작가들은 다양한 모습의 권력 부패와 이에 따라 파생되는 부조리를 고발하였고, 관료사회의 생태와 관리의 생활, 관리들의 내면세계와 인성을 묘사해내었다. 반부패 소설은 부패 반대라는 명확한 목적과 사명을 띤 장르이기에 다양한 소재로 창작된 각 작품의 주제가 모두 반부패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인물형상 및 서사구조에 있어서도 단일성에 가까운 유사성을 드러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다.

### 1. 권력의 오남용, 뇌물 수수, 성적 타락 현상 폭로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는 크던 작던 부패 현상이 생겨나며, 중국과 같이 1당 독재 시스템으로 권력 집중이 고착화된 국가에서는 그 부패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중국 반부패 소설에서 볼 수 있는 부정부패의 현상은 권력의 오남용, 뇌물 수수, 성적 타락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반부패 소설은 권력의 오남용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장평(張平)의 『십면매복(十面埋伏)』은 공안과 사법계의 부패현상을 고발하였다. 작품 중 은행을 급습, 4명의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20만위안을 탈취하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왕국염(王國炎)은

5) 邵筐, 「反腐風潮催生熱門“官場小說”」, 『檢察日報』, 2010. 2. 26. 서정희, 안승웅, 전금, 「반부패소설고」, 『中國學第41輯』, 2012. 4에서 재인용

사형 집행이 유예되었다가 다시 15년으로 감형되었다. 범인 왕국염(王國炎)이 사형 당하지 않고 오히려 법을 조롱하며 보호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사법 권력의 극도의 부패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王國炎은 성(省)위원회, 성인민대표자회의, 시위원회, 공안, 법원 등의 크고 작은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하였으며 이들 권력자들은 위아래로 단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주매삼(周梅森)의 『절대권력(絕對權力)』은 경주(鏡州)시의 서기 제전성(齊全盛)이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심을 버리고 노력하나, 그의 처와 딸은 제전성(齊全盛)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한다. 그의 처남과 부하 간부는 성기율위원회 상무서기 유중천(劉重天)과의 관계를 악용하여 수감 중인 범죄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석방을 약속하며, 유중천(劉重天)의 운전기사는 그의 권세를 등에 업고, 경찰국 간부에게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몰수한 경찰관의 해임을 요구하여 경찰관을 해임시킨다. 이패보(李佩甫)의 『양적문(羊的門)』은 주인공 호천성(呼天成)의 극단적인 전횡을 고발하고 있다. 자신의 인간관계망을 총동원하여 마을 호가보(呼家堡)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낸 호천성(呼天成)은, 온 마을 남녀노소의 생사여탈권을 한 손에 쥔 듯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한편, 지방 관리들을 자신의 하수인처럼 부린다. 지방 정부 인사에도 관여하여 이미 간부 임용이 결정된 인물을 탈락시키고, 위법 행위를 일삼는 친척 호국경(呼國慶)이 임명되도록 배후 조종한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호천성(呼天成)의 배후 세력에 두려움을 느껴 아무도 그에게 저항하지 못한다. 세 작품의 작가들은, 직위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공직 자리에 오르면 그것을 이용, 부당한 관계망을 만들어 전횡을 일삼는 관리들의 행태와 부패한 관리들을 등에 업고 이익을 탐하는 부패분자들의 죄상을 폭로하였다. 그 밖에 『창천재상(蒼天在上)』, 『국화(國畫)』, 『재부여인성(財富與人性)』, 『대설무흔(大雪無痕)』 등의 작품도 권력의 부패에 대하여 그 심각성과 권력 부패를 구성하는 왜곡된 인간관계를 집중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이처럼 권력 부패는 다른 분야로 부패의 영역을 확장하며, 그 매개체는 경제적 이익, 즉 금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질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금전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해결해 주는 도구로 간주되며, 경제적인 부는 인간의 모든 숭고한 가치를 초월하는 유일무이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력의 소유자는 금전으로 권력을 사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설무흔(大雪無痕)』의 국유기업의 총수는 대량의 주식을 권력자들에게 증여하였으며, 갓 부임한 시장 대리는 이 일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비서를 살해한다. 『결택(抉擇)』의 시장 이고성(李高成)의 부인은 30만위안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고, 중양(中陽)방직기업의 총수는 대량의 국가 자금으로 명인의 서화를 구입, 성(省)위원회 부서기에게 상납한다. 결국 중양(中陽)방직은 시의 경제력을 떠받치고 있던 중요한 대형 국유기업이었으나, 기업 내 간부들과 간부 인척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도산의 위기를 맞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실직으로 내몰게 된다. 성위원회 서기 양성(楊誠)은 권력의 부정부패는 인민에 대한 약탈 행위이자 공산당 정권을 위기

로 내몰고, 국가를 파괴하는 요인임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부르짖는다.

그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우리의 국력을 소모하게 한다. 마음대로 난폭하게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짓밟는다. ... 국가의 정부 관원이 위로는 제약이 없고 아래로는 감독 없이 횡령과 부패와 갈취와 약탈만 안다면, 사회가 가지고 있던 생산방식은 유지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에 축적된 재화 모두 헤프게 낭비하여 고갈시킬 것이다. 심지어 개혁개방 정책이 배양하고 탄생시킨 새로운 사회 기능과 적극적인 요소가 전부 파괴되어 깨끗이 소멸될 것이다... 6)

이밖에 많은 역사적 영웅들이 미인판을 넘지 못하고 실패하였듯, 성(性)은 권력 및 경제적 이익과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반부패 소설은 권력자의 성적 타락을 의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재부여인성(財富與人性)』의 필천성(畢天成)은 성실한 가장이었으나, 성(省)은행 상무부행장이 된 후 국제적 꽃뱀을 만나 성적인 유혹에 넘어간 후 부패 범죄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패가망신하게 된다. 같은 작품의 부패 분자 맹광태(孟廣太)는 자신이 성노리개로 삼은 여성들이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하고 기억도 못할 만큼 숫자가 많음을 자랑스레 떠벌여 권력 부패와 성적 타락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천노(天怒)』의 시위원회 초봉원(焦鵬遠) 서기는 방송인 송혜혜(宋慧慧)에게 음심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宋의 정사 장면을 촬영하게 하여, 宋의 생활과 자신의 정치 생명을 모두 파탄에 이르게 한다. 『기관대원·현위비서(機關大院·縣委秘書)』의 현위원회 비서장 범천책(範天策)은 정치적 야망의 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처를 권력자의 성적 상대로 제공한다. 성 의식의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발양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기에, 더욱 은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 보수적인 동방사회에서, 성적 유혹과 성 접대는 부패세력에 의해 공직자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로 이용되며, 공직자의 성적인 타락은 부패 범죄와 연결고리를 이루는 위험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 2. 정의롭고 영웅적인 주인공의 형상

반부패 소설은 대부분 선인과 악인, 탐관과 청렴한 관리의 이원대립적 인물 구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소설은 이렇게 정형화된 인물로 하여금 고정적인 노선을 걷도록 하고 있어 독자들은 작품의 전개과정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해 낼 수 있다.

『결택(抉擇)』의 이고성(李高成)은 부패세력과 일말의 타협도 거부하는 인민의 공복으로서의 전형적인 형상을 지니고 있다. 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는 중양(中陽)방직공장 입사 후 수십 년간의 성실한 근무를 통하여 아무런 배경 없이 말단노동자로부터 엔지니어를 거쳐 공장장으로 승진할 뿐 아니라 마침내 시장의 자리에 까지 오르는 입지전

6)張平, 『抉擇』, 人民文學出版社, 2004, p.370-371

적인 인물이다. 그는 오로지 정의롭고 청렴한 인품만을 갖추었으나, 그의 오랜 부하와 부인이 저지른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한동안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나 그는 공산당원으로서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부패와의 타협없는 전쟁이라는 올바르고 확고부동한 선택을 한다. 이고성(李高成)은 사회적 공익을 모든 사적인 인정에 우선시하여 부패와 연루된 자신의 오랜 부하와 동료,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 징벌하는데 앞장서며, 청렴한 관리로서의 인품과 기개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반부패 소설의 주인공은 거의 예외 없이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가난하다. 젊고 주관이 뚜렷하며 현실과 타협 없이 반부패 투쟁의 길을 걷는다. 얼굴에 흉터가 있어 더욱 용감함과 남성미가 물씬 느껴지는 『천노(天怒)』의 검사 진호(陳虎)는 뛰어난 지성을 겸비하고 있어, 그가 처리했던 판례는 대학교 법률전공 과목의 학습 자료가 된다. 작품은 그의 청빈함과 소박함,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예술적 취미를 즐기는 고아한 인품을 그의 집 구조에 대한 묘사로 표현하였다.

방 한 칸 거실 하나의 집은 매우 비좁아 보인다. 거실은 매우 협소하여 사실상 세 평 정도의 복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는 세탁기와 자전거가 놓여 있다. 침실은 어쩔 수 없이 서재와 식당을 겸하고 있다. 책꽂이 세 개, 옷장 하나, 일인용 침대 하나, 커다란 책상 하나가 방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리고 유화 이젤 하나가 세워져 있고, 유화물감과 팔레트가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sup>7)</sup>

같은 작품의 초소옥(焦小玉)은 강직한 인품을 갖춘 젊은 여경관이다. 사촌오빠와 어릴 때 함께 성장하였으나, 사촌오빠가 범죄를 저지르자 그를 체포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선다. 가난한 그녀는 사촌오빠가 생활에 보태 쓰라고 건네준 10만 달러 지폐를 오로지 그의 지문을 채취하기 위하여 받았을 뿐, 사촌오빠 체포 작전에 자원하여 직접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다. 거액의 돈과 혈육의 정 앞에 결코 흔들림 없이 인민과 대의를 위하는 공산당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꺾듯이 수행한 것이다. 『대설무흔(大雪無痕)』의 방우림(方雨林) 역시 학창시절 우등생을 놓친 적이 없는 지적인 청년이다. 가난하지만 타협을 모르는 성격 때문에 부패분자 풍상룡(馮祥龍)이 여동생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알선해주겠다는 유혹을 뿌리친 후, 풍상룡(馮祥龍)의 분노를 사서 여동생이 살해당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재부여인성(財富與人性)』의 여검사 임설(林雪)은 석사학위와 유학 경력이 있는 재원이다. 그녀에게는 여색에 빠진 남편과 부패분자를 애인으로 둔 여동생이 있으나 그녀의 반부패 척결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녀와 콧대를 이루는 고장생(高長生) 검사장 역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렴결백함 때문에 검사장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60년대식의 작고 초라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14인치짜리 흑백TV만 놓여있는 70평방미터 남짓한 집에서 병든 아내와 병든 딸, 그리고 노부모를 모시고 산다.<sup>8)</sup> 딸은 백혈병에 걸려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지만 수 만 위엔에 달

7) 方文, 『天怒』, 遠方出版社, 1996, p.226

8) 畢四海, 『財富與人生』, 江蘇文藝出版社, 2000, p.151

하는 수술비가 청백리인 고장생(高長生)에게 있을리 없다. 이때 익명의 기부자가 보내 온 5만위안으로 기적적으로 수술비가 마련되어 수술을 하려는 찰나, 금괴 밀수 혐의자 맹광태(孟廣太)가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보낸 돈이라는 것을 밝히고 조건 없이 사용할 것을 권한다. 고장생(高長生)은 이 절박한 현실 앞에서도 결코 진정한 공산당원으로서의 신념을 잃지 않고 돈을 포기함으로써 철두철미한 반부패 전사의 형상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십면매복(十面埋伏)』에서 표현된 영웅들도 위험한 투쟁 속에서 고독감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 전진하는 희생정신으로 무장된 이들은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흉악범들과 주저없이 결전을 벌인다. 나유민(羅維民)은 자신의 처가 인질로 잡혀 있고,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에서 과감히 차를 몰아 범인 추격을 강행하여 범인의 차량을 가로막는데 성공한다. 공안처장 하파(何波)는 몸에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범죄자와의 전투를 지휘하고 범죄자와 격투를 벌이다 장렬히 사망한다. 작가 장평(張平)은 다음과 같이 문학 창작에 있어 영웅의 형상에 대한 묘사를 강조하였다.

공산당 내에 반드시 양심을 갖춘 공산당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전(全)민족 그리고 마땅히 전 인류의 엘리트그룹에 속한다. 그들은 민족의 미래와 인류의 운명에 대하여 시시각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이 갖춘 우환의식과 시대적 풍모, 민주사상, 법제관념, 이성적 태도, 변혁정신, 그리고 그들의 정의, 용기, 완강함과 집념, 그리고 참신한 시대와 아름다운 사회에 대한 동경에 대하여, 설마 우리가 그것들을 노래하고 묘사하고 지지하고 부르짖을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sup>9)</sup>

장평(張平)의 말대로 반부패소설의 반부패 전사와 청백리들은 사회의 정의와 양심을 대표한다. 그들의 멸사봉공의 희생정신은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는 현대인을 각성케 하고 사회적 의무감을 느끼게 한다. 정의감과 용기와 양심이 있으면 모든 사악함을 이겨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케 한다. 하지만 권력과 돈과 색정을 추구하는 부패분자들과는 정반대로 비범하고 초인적이고, 심지어 초자연적으로 그려진 반부패 영웅들의 불가사의한 심성과 능력은 그 비현실성을 능가하는 초현실성, 그리고 인성에 대한 깊은 탐색을 회피한 천편일률적 단순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주의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3. 이원 대립적 서사 형태

반부패소설의 이원 대립적 인물 형상은 이원 대립적 서사 구조를 형성시킨다. 반부패소설은 플롯의 전개 과정상 일정한 스타일을 갖추고 있다. 먼저, 부패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반부패 투사들이 부패 범죄자를 조사하고 추적하는데 있어 처음에는 부패 세

9)張平, 「文學, 現實及其他 — 兼<天罔>創作談」, 『文藝報』, 1993.8.14

력의 역량의 우월함 때문에 여러 번의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조사 기관 내에서도 조사 활동에 대하여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마침내 영웅의 출현과 활약으로 진상이 드러난 후 부패 범죄자는 응당한 징벌을 받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이다. 즉, 부패집단과 부패문제의 출현, 반부패 인물 행동 개시, 쌍방 대립, 반부패 인물 신변에 위기 발생, 부패세력의 우위 선점, 반부패 세력의 약화, 결정적 조력자의 등장, 상황 반전, 반부패 인물 신변 위기 해소의 순서로 진행되다가 정의는 승리, 악은 패배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반부패 소설의 플롯 전개상 빠질 수 없는 공통점은 반부패 투쟁의 출로가 모두 막혀있을 때 어디에선가 홀연히 귀인이 등장한다는 것이고, 그는 부패 인물 혹은 반부패 전사보다 더욱 세력이 큰 정의로운 관원인 경우가 많다. 『대설무흔(大雪無痕)』의 중앙기율위원회 동림(董琳) 부서기는 부패 세력과 반부패 관원들의 투쟁이 부패 세력의 승리로 귀결되려는 찰나 태양이 먹구름 속에서 나오듯 찬란하게 등장한다. 국가와 인민에 대한 애정으로 충만했던 그녀는 열정적인 성격 탓에 과도한 업무로 병을 얻어 입원해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서 무소불위의 능력으로 부패세력을 척결하며, 와병 중에도 늘 부패세력 일소에 대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음을 증명해낸다.

부패현실의 심각성 노출, 청렴한 관리의 등장, 부패 문제의 해결, 선행과 악행에 대한 보답과 징벌, 천하태평 순으로 선량한 독자들이 원하는 대로 물 흐르듯 순조롭게 흘러가는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는 장평(張平)의 『결택(抉擇)』, 『국가간부(國家幹部)』, 육천명(陸天明)의 『창천재상(蒼天在上)』, 『대설무흔(大雪無痕)』 등의 반부패 소설은 탐관오리와 사악한 공모자, 몇 명의 미인을 내세워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한껏 어지럽혀 놓은 다음 청렴한 관리, 혹은 영웅을 등장시켜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둘러 우주의 먼지를 없애듯 사건을 해결토록 하는 전통적인 '포청천(包青天)'고사를 재현해 놓고 있다. 즉 대부분의 반부패 작품들은 법률과 제도의 허술함, 무리한 권력 운용의 폐해, 도덕과 윤리의 실종 문제에 대하여 그 구조적 심각성을 파헤치고 보완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과 정의감으로 무장한 영웅이 불굴의 의지로 우여곡절을 극복한 후 사건을 해결하고 마무리를 짓게 하여 독자들의 카타르시스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대립적 영웅주의 서사스타일은 중국 고전 문학 작품에서 많은 예를 찾아낼 수 있다. 『수호전(水滸傳)』의 양산박(梁山泊) 영웅호걸들이 부패한 관리에 대항하는 고사가 그렇고, 『아년영웅전(兒女英雄傳)』, 『삼협오의(三俠五義)』 등 청대 협의(俠義) 소설 역시 영웅호걸의 의협심을 찬양하며 협객이 악자를 도와 악한을 물리친다는 통속적 낙관주의가 기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대립 형성 및 영웅 혹은 판관을 통한 사건 해결의 구도는 현·당대문학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조수리(趙樹理)의 『소이흑결혼(小二黑結婚)』<sup>10)</sup>류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10) 점술과 신령의 미신에 깊이 빠진 양가 부모 때문에 사랑하지만 자유연애를 금지 당하고 있던 소근(小芹)과 소이흑(小二黑)은 설상가상으로 小芹을 탐내는 악당들 때문에 갖은 마음고생을 한다. 그들은 결국 구장(區長)을 찾아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며 현명한 구장은

황제의 국가 권력 독점, 탐관오리의 수탈과 부패와 전횡이 극에 달하여 일반 민중의 정치 경제적 소외 문제가 심각하였던 중국 고대 사회에서, 민중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런 삶을 구원해 줄 구원자의 출현을 갈망하였다. 이러한 갈망은 수많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처절하게 좌절되었을 것이며, 환상 파괴에 따른 보상 심리가 무소불위의 영웅 및 청백리, ‘포청천’의 고사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중국문학의 중요한 인물형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민중들은 비범한 능력으로 악의 무리를 단번에 쳐부수는 영웅들의 형상을 감상하는 가운데 정서상의 쾌감을 만끽하게 되며, 문학 작품 속 쾌도난마식의 현실 완성이 잠시나마 유토피아적 이상향을 향유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개혁개방 정책 아래 경제 발전과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부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민중들의 반부패에 대한 염원과 이에 따른 중국 전통문학 속 청백리 영웅의 출현에 대한 갈망은 반부패 소설 성행의 사회문화 심리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작품 속에서 영웅주의적이고 이원대립적인 단일한 서사 구조를 형성토록 한 것이다.

반부패소설의 영웅주의는 민중을 주변인으로 소외시킨다. 『결택(抉擇)』의 중양(中陽)방직공장의 실직 노동자들은 반부패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에 주체할 수 없는 울분과 원망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량으로 부패세력을 응징하지 못한 채 이고성(李高成) 및 만영년(萬永年)과 같은 청백리의 영웅적 투쟁에 몸을 의지한다. 반부패 소설 속 민중들은 자신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스스로 타개할 수 없는 무기력한 방관자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반부패 소설의 영웅주의적 서사에서는 인치(人治)가 강조되며 법치의 중요성이 무시된다. 『결택(抉擇)』의 이고성(李高成)은 수십 년을 동고동락 했던 아내와 동료, 그리고 부패 세력을 대상으로 홀로 외롭고 힘든 싸움을 벌인다. 강대한 부패 세력을 응징해야 하는 책임 뿐 아니라 인정과 의리, 사랑의 감정마저 공익을 위하여 극복하는 선택(抉擇)을 해야 하는 비장감이 느껴지는 한편, 모든 어려움을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려 하는 돈키호테식의 무모함이 엿보인다. 국가의 흥망이나 사회 평등 및 정의의 실현은 한 사람의 청백리나 영웅의 힘으로써가 아닌, 법률의 합리적인 운용, 그리고 민주적이고 이성적인 통치행위의 축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이것을 촉진하는 것은 전체 민중의 단결된 역량과 염원인 것이다. 그러나 “법이란 다스림의 말단이고, 군자야 말로 법의 근본이다(法者治之端也, 君子者法之原也)”라는 말처럼 중국은 전통적으로 법 보다는 제왕과 군주의 훌륭한 인격에 의지한 인치를 근본으로 삼았기에 법치의 중요성에 대한 관념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며, 절대군주의 절대적 지배체제는 사회주의 중국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중들은 법과 제도의 개선에 의한 사회와 생활의 변화를 희망하며 지배층에 대하여 때로는 합리적이며 때로는 과감한 질의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포청천이 출현하여 자신들의 불행한 삶을 일거에 행복으로 전환시

악당들에게 징역형을 내리고, 두 사람은 혼인의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그들은 명관관인 구장의 출현이 있었기에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켜 주기를 꿈꾸는 무기력한 몽상에 젖어 있는 것이다. 결국 반부패 소설은 중국의 전통적 영웅주의, 법치 관념 부족 및 인치 의지 성향 등에 호소하여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부패 문학이 반부패 현상을 고발하고 폭로하며 그것을 작품 내에서 영웅적인 서사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짓는데 그치는 한, 그것이 결코 건강한 현실주의 문학의 한 갈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반부패 소설은 현상 폭로와 고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패의 밑바탕을 이루는 문화에 대한 분석 및 비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주인공의 인격 및 생존 배경과 환경에만 집중하여 관료사회의 현실을 비판한 수많은 작품들은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난 자의적인 정치권력과 여기에서 조성된 사회문화가 어떻게 인간의 가치 선택을 좌우하는지, 어떻게 인성을 왜곡하고 인간을 소외시키는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 반부패 소설이 독자로 하여금 진정한 감동을 느끼게 하여 인성의 승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부패를 넘어서 철학 및 문화적인 사고, 즉 관료주의적 권력 생태가 문화의 형태를 어떻게 결정짓는지, 이러한 문화는 또 어떻게 사회 심리와 사회 질서, 그리고 인간의 사회생활을 좌지우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성급한 사건 해결에 의한 어색한 해피엔딩이 아닌 민중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더욱 아프게 파고들어야 한다. 자의적이고 통제력을 상실한 권력이 어떻게 인간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왜곡하고 마비시켜 인간을 권력의 노예, 물욕의 노예로 만드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분석하여 인간과 사회의 궁극적 목표와 가치를 사고하는 수준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 Ⅲ. ‘주선율(主旋律)’ 반부패 소설의 가치 및 한계

1987년 3월 개최된 ‘전국영화공작회의’에서 영화국장 등진현(騰進賢)은 “주선율을 두드러지게 하고, 다양화를 견지하자(突出主旋律, 堅持多樣化)”는 주장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주선율’의 개념을 정식으로 제기하였다. 사전적 의미의 주선율은 “다성(多聲) 음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선율”로서, 주된 정신 및 사상, 기본적 관점을 빚대어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주선율 문학’은 한 시대의 사회 및 역사 발전의 주요한 추세와 본질적 규율, 그리고 주류 사상 및 이념을 체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주선율 문학 개념은 1980년대에 등장하였지만, 정책에 의한 문학 창작의 방향 설정 및 기획이라는 면에서 볼 때 결코 짧지 않은 시간 속에 동어 반복을 진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5·4신문학운동을 시작으로 1920년대 등중하(鄧中夏), 운대영(惲代英), 구추백(瞿秋白) 등 초기 공산당원들이 주장한 마르크스주의 문학이론에 의한 신문학의 건인, 1930년대 좌련(左聯)시기 무산계급혁명문학이론 등은 현대 중국에 있어 주선율 문학이론의 탄생과 초보적 발전을 알리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1942년 모택동(毛澤東)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말씀)」(이하, ‘연안문예강화’로 줄임)의 “문예는 노동자, 농민, 병사를 위하여 복무하고, 정치를 위하여 복무해야한다”는 방침 제기에 따른 문화 권력의 장악,<sup>11)</sup>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 4인방이 주도한 「部隊文藝工作者座談會紀要(부대문예공작자 좌담회 요약)」 등은 문예의 정치 종속화, 문예의 일체화 및 집체화가 ‘주선율’을 구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좌(左)편향적 ‘주선율’은 문혁이 끝날 때까지 ‘유일한 선율’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문화대혁명이 종료된 이후, 1979년 10월 등소평(鄧小平)은 「在中國文學藝術工作者第四次代表大會上的祝詞(중국문예예술공작자 제4차 대표대회에서의 축하)」에서, “문예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文藝爲人民服務, 爲社會主義服務)”는 소위 ‘이위(二爲)’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문예는 공(工)·농(農)·병(兵)과 정치를 위하여 복무해야 한다는 기존의 틀을 다소 확장시켜 놓았다. 개혁개방 정책 노선에 따라 이른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목표가 대두되었고, 상흔(傷痕)문학, 반사(反思)문학, 심근(尋根)문학 등 문학의 정치 종속에 반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의 요구와 탄생 등, 사회 및 문화계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의 주선율의 색채를 다소 변경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94년 1월 강택민(江澤民)은 「在全國宣傳思想工作會議上的講話(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에서의 말씀)」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선율 문학 정형(定型)화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선율의 내용은 보다 풍부한 함의를 지니게 되었다.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 사업을 가속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예정책에 있어 ‘이위(二爲)’와 쌍백(‘雙百’)의 방침을 확고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선율을 널리 선양하고 다양화를 제창(弘揚主旋律, 提倡多樣化)”해야 한다고 밝혔다.

‘二爲’의 방향과 ‘雙百’의 방침은 우리나라가 선전하는 문화사업의 발전 규율을 깊이 반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문화사업의 발전 규율을 깊이있게 반영한 것이며, 정신적 생산품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요구이다. 문화사업의 변형을 선전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주선율을 널리 선양하고, 다양화를 제창하는 것은 ‘二爲’의 방향과 ‘雙百’ 방침의 구체적인 체현이다. 주선율을 널리 선양하지는 것은, 중국특색사회주의 이론과 당의 기본 노선 아래, 애국주의, 집체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정신을 발양하는데 유리한 모든 사상과 정신을 크게 제창하고,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에 유리한 모든 사상과

11) 「연안문예좌담회」는 1942년 5월2일 중국공산당이 위치하고 있던 延安에서 열린 대규모 문예 집회이다. 毛澤東과 劉凱豐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참석자는 周揚, 丁玲, 艾青, 蕭軍, 周立波, 周而復, 何其芳 등 문예계 종사자와 朱德, 陳雲, 賀龍 등 당·정·군 인사 100여명이었다. 문예계의 당면 문제에 대하여 내린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예는 혁명을 영도하는 계급인 노동자, 동맹군인 농민, 혁명전쟁의 주력군인 병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공(工)·농(農)·병(兵)을 교육함에 앞서 그들에게서 학습해야 한다. 셋째, 문예활동은 전체 혁명 운동의 유기적인 조성 부분이 되어야 하며, ‘항일’과 ‘민주’등에 있어 통일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정치적 기준이 제 1순위이며, 예술적 기준은 제 2순위이다. 다섯째, 계급사회에는 오직 계급성으로서의 인성만 있을 뿐 초계급적인 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섯째, 적에 대해서는 폭로를, 동맹자에 대해서는 연합과 비판을, 자기편에 대해서는 밝은 면만을 찬양해야 한다.

정신을 크게 제창하며, 민족단결과 사회진보, 인민행복에 유리한 모든 사상과 정신을 크게 제창하고, 성실한 노동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쟁취하는데 관련된 모든 사상과 정신을 제창하는 것이다.<sup>12)</sup>

1997년 「中共中央關於進一步做好文藝工作的若干意見(문예공작의 진일보에 관한 중공중앙의 약간의 의견)」에서는 강택민(江澤民) 「강화(講話)」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는 한편, 문예창작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창작을 번영시키는 것은 문예 공작의 중심적인 부분으로서, 우수작 창작 의식을 수립하여야 하고, 우수작 창작 전략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상과 예술성이 통일되어 있고, 강렬한 흡인력과 감염력을 갖추고 있으며 광대한 대중들로부터 깊은 열렬히 환영받는 우수한 작품을 더욱 많이 창작하는데 노력하여 문예사업의 전면적인 번영을 이끌어가야 한다. 문학 창작의 번영을 적극적으로 추동하여야 하고, 소설, 시가, 산문, 보고문학과 연극, 영화 극본의 사상적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장편소설의 창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sup>13)</sup>

또한 주선율을 널리 선양하는 우수한 작품의 양산을 위해서 '오개일공정(五個一工程)'이 매우 중요함을 밝혔다. '오개일공정(五個一工程)'은 1991년 중공중앙선전부(中共中央宣傳部)가 주도하여 실시된 것으로, 각 성과 시, 자치구로 하여금 매년 한편의 좋은 책과, 한편의 좋은 연극, 한편의 우수한 영화와 한편의 TV드라마, 한편의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는 문장을 선발하도록 요구하는,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주류문화 생산의 방식이다. 주선율 문학 역시 '한편의 좋은 책'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국가 이데올로기를 선전·보급하는 주류문화 창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며, 그 중 장편소설은 '두드러진 중점 장르(突出重點)'로 주목받으며 국가 문예정책 수행이란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주선율 문예 창조라는 국가적 프로젝트 하에 창작된 장편소설<sup>14)</sup> 중 반부패소설은 현실 속 부정부패에 대한 지적과 비판, 즉 현대화 추동을 위한 사회적 반성의 역할과 통치권 주류 이데올로기의 문학적 구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나아가야 했다. 『결택(抉擇)』의 이고성(李高成)은 부패분자 곽중요

12) 「在全國宣傳思想工作會議上的講話」(“二为”方向和“雙百”方针, 深刻反映了我国宣传文化事业的发展规律, 是对精神产品生产的基本要求, 是宣传文化事业繁荣的重要保证。弘扬主旋律、提倡多样化, 是坚持“二为”方向和“雙百”方针的具体体现。弘扬主旋律, 就是要在建设有中国特色社会主义的理论和党的基本路线指导下, 大力倡导一切有利于发扬爱国主义、集体主义、社会主义的思想和精神, 大力倡导一切有利于改革开放和现代化建设的思想和精神, 大力倡导一切有利于民族团结、社会进步、人民幸福的思想和精神, 大力倡导一切用诚实劳动争取美好生活的思想和精神。)

13) 「中共中央關於進一步做好文藝工作的若干意見」(繁荣创作是文艺工作的中心环节。要树立精品意识, 实施精品战略, 在文学艺术各门类中, 努力创作更多思想性艺术性统一、具有强烈吸引力感染力、深受广大群众欢迎的优秀作品, 带动文艺事业的全面繁荣。积极推动文学创作的繁荣, 提高小说、诗歌、散文、报告文学和戏剧影视剧本的思想艺术水平, 特别要着重抓好长篇小说的创作。)

14) 향토생활을 제재로 한 것은 關仁山の 『風暴潮』, 『福鎮』, 기업의 개혁을 제재로 한 것은 談歌의 『大廠』, 『年底』, 군사문제를 제재로 한 것은 柳建偉의 『突出重圍』, 鄭一光的 『我是太陽』 등이 있다.

(郭中姚)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한다.

공산당은 자네를 충분히 신임하였고 국가와 정부도 자네에게 해줄만큼 해주었네. 자네는 이렇게 많은 돈으로 또 무엇을 하려는가? …… 공산당이 자네를 이렇게 잘 대해주었고, 또 이처럼 높은 지위도 주었는데 자네는 암암리에 공산당에게 해를 입히고, 공산당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네. 자네는 진실로 공산당이 자네에게 총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일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15)

관리들의 부패를 준엄하게 꾸짖는 동시에, 부패는 권력과 정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타락과 악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나아가 대중들로부터 회의의 눈총을 받고 있는 공산당 정권이 부패와 무관할 뿐 아니라 부패를 혐오하는 인민대중들과 한 편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설파하며 주류이데올로기의 선전 매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주선율 문학의 기본 목표가 ‘쌍백(雙百)’ 보다는 이위(二爲)–정권 유지를 위한 구호로서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앞서 거론한 바, 반부패소설이 청백리와 부패분자의 대결에서 청백리가 악의 세력을 일소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는 전통 문학이 즐겨 사용하였던 선악 이원론적 대립구조 속에 청백리 영웅 만들기의 상투적 서사 기법을 답습하는 까닭 역시 ‘이위(二爲)’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있어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抉擇』의 이고성(李高成)은 “백성들은 늘 청백리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우리 공산당원이 청백리 노릇을 못한다면 누가 하겠는가? 수많은 고향마을 어르신네, 노동자와 농민들이 뒤를 받쳐주고 있는데, 우리 공산당원이 두려울 게 무엇인가?”<sup>17)</sup>라고 외친다. 1950년대에 벌어진 반(反)우파 투쟁, 반(反)수정주의 투쟁 등 극좌적 광기 속에 「연안문예강화」의 공·농·병 정신만이 유일한 주선율로 인식되어, 문학 작품 속에 걸핏하면 느닷없이 등장했던 “모(毛)주석 만세”라는 찬양의 외침이 오버랩 된다. 진정한 부패는 공권력을 소유하고 집행하는 체제 내부의 세력들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에 눈을 감은 채, 공산당원으로부터 청백리의 형상을 발견할 것을 강요하는 반부패소설이 추구하는 바는, 사실상 인민을 위한 복무도 사회주의를 위한 복무도 아닌, 다양화의 추구와는 더더욱 거리가 먼 진정한 ‘이위(二爲)’와 ‘쌍백(雙百)’의 주선율에서 벗어난,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와 비위 맞추기를 주된 선율로 삼은 조악한 연주에 다름 아닌 것

15)張平, 『抉擇』, 人民文學出版社, 2004, p.446

16)江澤民은 「在全國宣傳思想工作會議上的講話」에서 주선율의 정신을 반영한 작품은 사상과 내용이 건강하고 진보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예술 표현 형식도 다양하고 생동감이 넘치며, 강렬한 흡인력과 영향력을 갖추어서 문화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反映主旋律的精神產品不僅思想內容要健康向上, 藝術表現也應多種多樣、生動活潑、精益求精、具有強烈的吸引力和感染力, 在文化市場競爭中贏得優勢。) 그러나, ‘雙百’과 ‘二爲’, ‘弘揚主旋律’과 ‘提倡多樣化’는 서로 동등하고 각각 독립적인 가치를 갖춘 개념이 아니라, ‘二爲’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책략으로서 ‘雙百’이 존재하며, ‘多樣化’는 ‘主旋律’로 하여금 “강렬한 흡인력과 감염력”을 갖추도록 하고 “시장 경쟁에서 우세를 획득”하여, 심미적·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도구적이고 종속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개념인 것이다.

17)張平, 『抉擇』, 人民文學出版社, 2004

이다. 반부패 소설의 민중은 결코 위대하지 않다. 『결택(抉擇)』의 중양(中陽)방직의 노동자들은 부패분자에게 기업 파산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부패 원인의 근본을 찾아 사회 혁명을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지함에 가까운 맹목적인 선량함과 희생정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부패분자들의 기생을 무기력하게 용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요구도 없어요. 정말로 어떠한 요구도 없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놀며 주지육림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부패에 빠져있다는 것도 알아요. 부패하라고 뭐. 아무도 그들을 간섭할 수 없다면 우리들도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든지 상관없이, 공장만 다시 열면 되요. 우리들이 출근만 할 수 있으면 된단 말 이예요! 우리 노동자들은 달리 재주가 없어요. 흠칠 줄도 모르고 빼앗을 줄도 몰라요. 남을 곤경에 빠뜨리고 숙일 줄도 모르지요. 오로지 일만 할 줄 알고, 힘을 팔아먹을 줄만 안답니다. 18)

작품 속 노동자들의 유일한 바람은 오로지 기업 파산의 현실이 원상태로 회복되어 직장에 다시 출근하는 것일 뿐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희망을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의지를 전혀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우리들을 출근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은 아무런 요구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보수도 바라지 않아요.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그대로 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기계를 돌릴 수만 있다면, 작업장에 다시 소리가 날수만 있다면 피곤하고 힘들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달게 받을 것입니다...19)

개혁개방 체제하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건설로 삼고 있는 중국 정부는 부패에 저항하고 공·농·병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를 원하지 않는다. 체제와 정권이 아무리 부패하더라도 본분에 충실하며 공산당에게 면죄부를 발급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기희생적인 직업윤리를 소유한 순응적인 노동자에 대한 찬양이야말로 지배층이 기획한 새로운 시대의 '주선율'인 것이다.

부패에 대한 민중들의 양보와 영웅의 등장에 의한 사건 해결 방식으로 말미암아, 반부패소설의 결말은 영화 『공공의 적』 시리즈처럼 언제나 통쾌하고 뒤끝이 없다. 그러나 이는 작가의 허약한 이상주의와 정권의 문예 정책이 만들어낸 소설의 허구성이 현실 속 부패의 뿌리를 감추고 왜곡한 결과이며, 상상과 은폐가 부패 문제의 완전 해결이란 잠시 후 무너질 허무한 모래성을 이루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모택동(毛澤東)이 “문예를 혁명이란 기계의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삼아, 인민을 단결시키고, 인민을 교육시키고, 적에게 타격을 입히고, 적을 소멸시키는 유력한 무기로 삼아 인민들이 일치단결하고 적과 투쟁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20) 라고 말했듯이, 오늘날의

18) 위의 책, p.29

19) 위의 책, p.54

20)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使文艺很好地成为整个革命机器的一个组成部分, 作为团结人

전제(專制) 정권은 또다시 대중의 세계관과 도덕관에 쉽게 영향을 미치는 문예를 무기로 삼아 대중을 유인하고 설득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 기도하고 있으며, 이로 부터 문예와 통치 계급 간에는 일종의 암묵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책으로서의 문예는 개혁개방 이전의 폭압적인 매커니즘이 아닌 ‘오개일공정(五個一工程)’과 같은 격려의 매커니즘 속에 지배계급이 설정해 놓은 틀 안에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며 그들에게 합법성을 입증해주는 하수인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 것이다.

#### IV. 맺는 말

1990년대 주선을 제창의 문예 정책 속에 탄생된 반부패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시경(詩經)』 이래로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었던 중국 고대 문학과 현·당대문학의 현실주의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의 현실 속 부정부패의 편린을 드러냄으로써 기득권자들의 탐욕을 알리고 사회의 불공정함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설 속 영웅적 형상의 주인공은 무한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전설 속 천자나 태평재상처럼 진정 인민을 위한 지도자의 출현을 갈망하는 대중들에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작품 속에서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고난은 잠시일 뿐 모든 것은 좋아질 것이라는 위안을 선사해 준다.

그러나 만일 그 ‘주선율’이라는 것이 건강한 다원화를 주도하는 가치 규범이 아닌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구호라고 한다면, ‘반부패 소설’이라는 것이 천안문사태를 경험한 중국의 권력층에서 민중의 저항 정신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내어 놓은 대리 만족용 상품이라고 한다면, 개별적 부패 사건에 대한 분노가 정권과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 두려워 몸통 보호를 위한 꼬리 자르기 식 전략으로 기획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반부패소설의 작가들의 창작이 진정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 자발성과 용기의 발로가 아니라 결박당한 손발을 마지못해 움직이는 어거지 춤사위라고 한다면, 이들의 문학은 결코 민중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현실의 어두움을 뿌리 채 폭로하여 희망찬 내일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의미의 현실주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와 법률과 제도, 그리고 그것이 운용되는 전반적 사회시스템과 문화의 문제점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개별적 부패 사건을 중심으로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대결구도를 정하여 뻔히 예상된 승부를 이야기하는 중국 반부패소설의 헐리우드식 서사 구조는 극단적으로 말하여 주선율이 아닌 민중의 삶을 우롱하는 장송곡이기 때문이다.

모택동(毛澤東)의 『연안문예강화』가 수 십 년간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작가의 양심을 희생시킨 시퍼런 작두 날로 작용하였음에도, 오늘날 또 다른 정치 지도

자들은 다양하게 변형된 『말씀(講話)』을 통해 여전히 문예를 국가 경영 및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굴리는 수레바퀴의 부품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물론 국가 이데올로기와 체제가 한결 개방적인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문예정책의 그물망의 조임이 이전보다는 훨씬 느슨해지긴 했지만 말이다.

강택민(江澤民)은 2001년 『在中國文聯七大、中國作協六大上的講話(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제7차대회 및 중국작가협회 제6차대회에서의 말씀)』에서 “민족문화의 우량한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고, 민족정신을 크게 선양하며, 세계 기타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 성과를 흡수하여 문화가 시대의 발전과 함께 발맞추어 가야한다”<sup>21)</sup>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극히 친정권적이고 현실 타협적인 작가들이 오개일공정(‘五個一工程’)과 같은 당근의 유혹 속에 창작한 반부패 소설조차 여러 가지 제약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sup>22)</sup> 21세기 중화인민공화국 언론 통제의 현실이 과연 역설적 토양이 되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게 하듯 노신(魯迅)이나 발자크, 스탕달과 같은 참된 현실주의 작가와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모순(茅盾) 문학상」에 빛나는 인민 작가 장평(張平)은 2008년 산서성(山西省) 부성장에 선출되어 현실 정치에 뛰어들 이후 『결택(抉擇)』의 이고성(李高成)이 걸었던 청백리의 길을 곳곳하게 가고 있을까? 오늘날의 작가들은 모두 어떠한 ‘抉擇(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21) 江澤民, 『在中國文聯七大、中國作協六大上的講話』(保持和发展本民族文化的优良传统, 大力弘扬民族精神, 积极吸取世界其他民族的优秀文化成果, 实现文化的与时俱进…)

22) 陸天明은 『大雪無痕』의 결론이 밝고 희망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후, 후속편인 『省委書記』에서는 주된 논조를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공산당에 대한 찬양으로 전환하였으며, 張平은 소설 속 부패 분자로 그려진 인물의 원형이라 비추어진 정부 관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모두 체제 아래에서 창작한다. 여러 해 동안의 관성과 모종의 역사적 원인들은 우리들이 증대한 인문영역의 문턱 앞에서 일종의 습관적인 신중함과 조심스런 회피를 하도록 만든다” 라고 말한 陸天明의 고백(陸天明, 「我爲甚麼要寫〈省委書記〉— 求助于新歷史主義的一次闡述」, 『當代作家評論』, 2002. 11 참조) 속에서 반부패 작가들의 창작 환경에 대한 고뇌를 감지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詩經』  
『唐詩三百首』  
張平, 『十面埋伏』, 人民文學出版社, 2009  
張平, 『抉擇』, 人民文學出版社, 2004  
張平, 『天網』, 人民文學出版社, 2009  
張平, 『國家幹部』上·下, 人民文學出版社, 2009  
周海森, 『絕對權力』, 作家出版社, 2001  
陸天明, 『蒼天在上』, 作家出版社, 2009  
陸天明, 『大雪無痕』, 花山文藝出版社, 2013  
王躍文, 『國畫』, 湖南文藝出版社, 2012  
方文, 『天怒』, 遠方出版社, 1996  
畢四海, 『財富與人生』, 江蘇文藝出版社, 2000  
毛澤東,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1942  
江澤民, 『中国共产党中央纪律检查委员会第二次全体会议上的講話』, 1993  
江澤民, 『在全國宣傳思想工作會議上的講話』, 1994  
江澤民, 『在中國文聯七大、中國作協六大上的講話』, 2001  
陸天明, 「我爲甚麼要寫〈省委書記〉— 求助于新歷史主義的一次闡述」, 『當代作家評論』, 2002. 11  
邵筐, 「反腐風潮催生熱門“官場小說”」, 『檢察日報』, 2010. 2. 26.  
서정희, 안승웅, 전금, 「반부패소설고」, 『中國學第41輯』, 2012. 4

투고일자 : 2013. 08. 14

수정일자 : 2013. 09. 21

게재일자 : 2013. 09. 27

국문초록

## 중국의 '주선율(主旋律)' 문예정책과 '반부패 소설' 연구

이태준(가천대)

1980년대 이후 중국에서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된 이래, 부정부패 문제는 민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시대적 화제가 되었으며 일부 문인들의 창작에 반영되어 이른바 '반부패 소설'이 탄생하게 되었다. 반부패 소설은, 개혁개방 이후 갈수록 중국 사회 곳곳을 뒤덮고 있는 배금주의의 만연 속에 권력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의 부패를 고발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관료사회의 생태와 관리의 생활, 금전과 권력 교환의 부조리를 고발하였고, 관리들의 내면세계와 인성을 묘사해내었다. 즉, 공직자들이 권력을 운용하는 과정 속에서 저지르는 권력남용과 불법행위가 경제 부패로 이어지며 정치권력의 사유화가 작품의 부패로 이어지는 현상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는 중국 사회에서 문인들의 자발성과 순수한 신념에 따라 반부패 문학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중국의 부정부패는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만한 심각한 문제가 되어 버렸고, 이에 체제 전복의 위협마저 느낀 중국 정부에서는 법률과 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문예를 수단으로 삼는 부패 방지 대책에 착안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반부패 문학은 이른바 '주선율' 문학, 즉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이념 및 가치를 대변하는 문학의 범주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주선율 문학'은 한 시대의 사회 및 역사 발전의 주요한 추세와 본질적 규율, 그리고 주류 사상 및 이념을 체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다. 1990년대 이후의 주선율 문학, 즉 정책으로서의 문학은 개혁개방 이전의 폭압적인 매커니즘이 아닌 격려의 매커니즘 속에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설정해 놓은 틀 안에서 지배계급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문학 작품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선율문학의 한 카테고리를 이루는 반부패소설은 현실 속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과 근원에 대한 탐색보다는 통치권 주류 이데올로기의 구현을 우선시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정한 부패는 공권력을 소유하고 집행하는 체제 내부의 세력들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에 눈을 감은 채, 공산당원으로부터 청백리를 발견할 것을 강요하는 반부패소설이 추구하는 바는, 사실상 인민을 위한 복무도 사회주의를 위한 복무도 아닌,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와 비위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영웅의 등장에 의한 사건 해결로 말미암아 반부패소설의 결말은 언제나 통쾌하고 뒤편이 없다. 그러나 작가의 허약한 이상주의적 신념과 정권의 문예 정책이 만들어낸 소설의 허구성은 현실 속 부패의 뿌리를 감추고 왜곡한다. 결국 부패 문제의 해결은 작가의 상상과 은폐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작가는 국가의 명을 받들어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합법성을 입증해주는 하수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주제어 : 반부패소설, 주선율문학, 중국 문예정책, 연안문예강화, 장평(張平)